

제285회 임시회

시정 질문·답변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이한영 의원

- 성천초 활용 방안 논의가 시급합니다.
-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이 한 영 의원

◎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월평동·만년동 김석봉, 장권윤, 김동진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제2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성천초 폐교 활용 논의의 시급성과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 필요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직접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을 질문하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성천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성천초를 성룡초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실시하

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의견수렴이 끝난 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천초 폐교 후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성천초 활용 관련 추진현황을 요청할 때마다 시교육청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TF팀 구성 중이다, 검토 중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오는 건 설동호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은 성천초 폐교 활용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신지요?
혹시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기에 그 이후 취임하는 교육감에게 이 과제를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성천초 폐교 활용 방안은 설동호 교육감이 밑그림을 마련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폐교를 모범적으로 활용한 타 시·도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옛 주촌초등학교가 2019년 3월 폐교하고 같은 해 12월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신 영상과 같이 학교 체육관의 높은 층고를 그대로 살려 만든 도서관 벽면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다양한 도서 체험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펼쳐지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찾아가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은 기존 학교가 폐교되기 전부터 설립 계획을 수립했기에 빠른 시기에 새로운 시설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폐교되기 직전의 소규모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충북교육청과 충주시 등은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통해 충주 삼원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9년에 문을 열 이 공간은 대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수영장, 찜질·사우나·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노인건강복지관, 늘봄교실 등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충북교육청 사례를 모델 삼아 성천초를 학교복합시설로 변모시키기 위해 대전시와 서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성천초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논의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22년 9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을 받아 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통폐합과 성천초 활용방안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심지 내 소규모학교인 성천초의 통폐합은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은 이 공간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성룡초와 성천초 통폐합 시점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통폐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성천초 활용계획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행정적인 느장 대응을 하지 말고 폐교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께 질문드립니다.

성천초 폐교 활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전 관내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전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학생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발생한 송촌고 교사 피습사건과 지난달 발생한 김하늘 양 사건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누구 하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련의 대형사고는 대전 관내 학교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예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사건 발생 당시 실시간 대응을 전혀 못 하면서 체계적인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 내 CCTV 대수를 늘리는 현행 정책을 넘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관내 150개 초등학교의 CCTV를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CCTV 4대씩, 총 600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정도 규모로 대전시 관내 학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전시 통합관제센터는 교통, 공공시설, 도시방범을 포함한 대전시 전체의 광범위한 관제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실시간

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특히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유형별 대응기능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시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가 마련되면 돌발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학교의 안전관리에도 큰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됩니다.

대전 관내 313개의 초·중·고와 특수학교, 16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의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23년 제272회 임시회, 2024년 제275회 임시회, 지난달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검토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대전교육의 의미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한영 의원님께서 대전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추진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성천초 폐교 활용을 위한 대전교육청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깊이 공감합니다.

만약 폐교가 방치될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지역 공동화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를 교육적 필요와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여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성천초등학교를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7년 3월로 예정된 폐교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검토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 논의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교 활용 결정과정은 행정적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계획을 거쳐 예기치 않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여 세부 활용방안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독자적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대책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내 안전 사건·사고 예방 및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는 8,268대이며 외부인 통제와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정문과 후문 등 외부 출입구와 사각지대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중 교당 4대씩, 총 61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부 및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총 1만 615대의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비와 시비로 설치하여 9,300여 대의 외부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CCTV의 통합관제를 위해서는 대전시 센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므로 약 385억 원 이상의 재원과 공무원, 공무원직 등 최소 70여 명의 정원 확보와 부지 등이 필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간 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으로 학교 내부 CCTV 통합관제를 추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학교 구성원 및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의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학교 내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및 지능형 관제 도입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 내

CCTV 통합관제를 위해 사전 의견수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로 폐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교 공간은 미래 공공자산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지역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영 의원 (1차 보충질문)

설동호 교육감께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성천초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전시와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협의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 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천초와 붙어 있는 남선중학교 수영장에 대하여 시민들께 개방하는 문제도 성천초 폐교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복합문화시설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방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설 계용역계획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셨는데 이 부분이 2027년 3월 1일 자로 폐교

되고 그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등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CCTV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대응,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CCTV는 사건 발생 후 사고처리의 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즉각적이고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성천초가 2027년 3월에 폐교 예정인데 공공자산이니까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성천초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라든지 공공시설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제대로 된,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자체, 대전광역시청과 소속돼 있는 서구청 그리고 또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예술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단체들이 있지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야만 모든 것들이 잘 구성되어서 공간이 잘 설치되고 공간이,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가장 기본이 공간입니다.

공간 속에서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이행돼야만 성과를 이루면서 발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 설치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청, 구청, 관련 기관·단체 모두가 지역사회에 연계돼서, 그런 것을 협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TF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TF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기관·단체와 같이 협약해서 아주 최상의, 최고의 공간 구성으로 교육적인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에 합당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 있고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근방의 남선중학교 수영장도 있는데 사실 학교 개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 학교가 개방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학교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또 학교의 시설에 따라서 개방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또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의 시민, 지역의 주민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활동들, 주민들의 체육, 스포츠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초등학교가 폐교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아까 남선중학교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근처에 연계될 수 있는 시설들과 연계해서 더 복합적인 시설로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것이 통합관제센터 설치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일반의 CCTV 설치와 학교의 CCTV 설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정문이라든지 출입구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안전과 모든 것을 철저히 보호하고 모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교내에,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양론이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면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잘못하게 되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이나 거기 관리하고 하려면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관련 인건비, 소요비가 많이 있고 관리비가 엄청난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교원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집약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라든지 정부, 교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 이쪽과 긴밀한, 모든 것에 대한 법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지 일반적인 도심지의 건널목이나 근방에 있는 CCTV와 학교의 CCTV는 모든 면에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설치 문제는 앞으로 더 모든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문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영 의원 (2차 보충질문)

본 의원이 두 번째 보충질문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할 때 내용 중에, 교육감 답변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 표현을 했었는데 답변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구체적인 답변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도 자꾸 회피하시는데 성천초 활용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돼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등이 반영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천초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관제센터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나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학교 교직원, 16만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교육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유념하시어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한영 의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대전성천초 폐교를 지역주민, 모든 교육가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데 지금 대전교육청에서는 모든 면,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논의하고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공자산인데 폐교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이라든지 구청 관련 기관·단체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교육가족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역량을, 거기에서 즐겁게 모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연구해서 계획을 짜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천초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앞으로 대전시의원님들께서, 이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시설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문제인데,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것은 대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문제인데 CCTV 설치 문제도 학교 현장에서는 실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교원들은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각지대, 위험지대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문, 정문이라든지 그런 외부지역 이런 쪽은 모르지만 실내 쪽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인권침해를 받거나 그런 면에서 잘못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통합관제하고 CCTV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야말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학생들이 정말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을 즐기면서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되거나 하면 오히려 단점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위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교육부 또 행안부라든지 모든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그야말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구축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전교육청에서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